

수직고경을 상실한 부분 무치악 환자에서의 보철 수복 증례

최상근, 임주환, 조인호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교실

편측성 혹은 양측성으로 다수치아를 상실했거나 혹은 교모, 마모등으로 인하여 수직고경이 상실된 경우에 심미적, 기능적인 회복을 위하여 보철적 수복을 요하는 증례나 고경상실과 더불어 측두하악 관절 장애가 복합된 경우에 수직고경 결정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수직고경에는 상하악 치아가 최대 폐구위에서 감합되고 있을 때 하악의 상악에 대한 수직적 위치를 나타내는 교합 수직고경과 하악이 생리적 안정위에 있을 때의 안정시 수직고경이 있으며 수직고경 상실의 형태는 실제 악간거리의 단축으로 인한 것과 악간거리는 유지되고 있어도 대합치아가 없는 잔존 치아가 정출하거나 또는 치조골이 증식하는 것과 같은 외관 상의 교합고경 저하 등이 있다. 교합거상을 하는 경우는 두개하악장애의 완화나 관절부위의 부하감소를 위해서, 그리고 치아가 심하게 마모되어 수직고경을 상실한 경우, 또는 안면부의 주름을 없애기 위한 것이 있으며 교합고경 결정 방법으로는 안면의 심미적인 조화를 관찰한다든지 형태학적인 교합고경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임의의 하악 안정위나 연하운동, 발음, myomonitor 를 이용한 생리적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지만 어느 한가지의 정확한 방법은 없으며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고려하여 수직고경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교합거상을 하는 경우의 거상량은 안정 공극 (freeway space) 내에서 멈추고 서서히 거상해야하며 중심위에서 모든치아가 유지 접촉을 얻게 하고, 최종적인 수복전에 교합이 안정될때까지 장기간의 반복적인 교합 조정이 필요하다.

본증례에서는 상하악의 다수치아의 상실과 하악전치부의 도재소부금관에 의한 상악 전치부의 마모로 교합고경이 상실된 환자에서 임시의치와 임시수복물로 4mm 교합거상하고 장기간의 교합조정을 통해서 교합안정을 얻고, 최종적으로 fixed bridge 와 removable partial denture 로 보철 수복한 예에 대해서 보고하고자 한다.